

지역 **메아리**

김제 도서관·다문화 청소년 화합 한마당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도서관·다문화·청소년 화합 한마당' 행사를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5층 문화교실에서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전주근영여고, 전북과학교, 전주고, 양현고, 한국전통문화고등의 수학·과학 동아리, 요리 동아리 학생들이 김제지역 다문화 어린이 및 초등학생의 멘토가 되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도서관·다문화·청소년 화합 한마당' 행사는 매년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항상 기다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 국제종자박람회, 모악산 오토캠핑장 등 4곳의 주요시책사업장 방문이 진행되었으며, 2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찬 내용의 회기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개선택으로 출산율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전기연구회, 재능나눔 봉사

김제 이웃사랑 전기연구회(회장 강동귀)는 성덕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세대 등 어려운 세대를 마을별로 방문하여 전등, 콘센트 수리, 노후전기시설 교체, 전기점검 등 재능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해 희망의 빛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 이웃사랑 전기연구회는 강동귀 회장을 중심으로 전기관련 자격증을 가진 20명의 회원이 전기수선이 필요한 소의 계층기구를 방문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올초 1월부터 성덕면 31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돌며 전기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15일에도 이웃사랑 전기봉사회는 후리 및 두무동 마을 9세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자체 점검방법 및 위험시 대처요령 등을 설명해 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2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인구 늘고 재정확충 선순환구조" 호평

완주군이 전국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2위를 달성,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 및 행정서비스 평가 2위, 지역문화와 지수 전국 5위에 이은 쾌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17일 완주군은 지난 9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2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모델 분석 결과 종합경쟁력 부분 2위를 수상했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지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세 부분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완주군은 총 538.27점으로 전국 군단위 전국 2위에 선정됐다. 이로써 완주군은 지방자치 경쟁력순위 3년 연속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경영활동 부분 3위, 경영지원 부분 10위, 경영성과와 부분 5위

등 전 지표부문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또 종합경쟁력 지수는 전국 기초 군 평균점수(464.34점)를 훨씬 웃돌았고, 지표 상위 10위 이내 이름을 올린 전북 자치단체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는 "완주군은 귀농 귀촌, 혁신도시 조성, 기업유치 등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며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제2산업단지착공,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를 직접화 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재정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다"며 호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산단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귀농귀촌 로컬푸드 정책 등

에 힘입어 완주군의 지방자치 경쟁력은 전국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뤄온 완주군의 무한한 성장세를 주민과 함께 극대화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목표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실천하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경영지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는 지표다.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세계화,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90여 개의 지표가 망라돼 시군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매각 안타까운 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매각이 유력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완주군과 군의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완주군민들은 하이트진로(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고품격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주공장의 매각설은 '향토기업' 이자 이웃이나 다름없다고 느끼는 완주군민과 전북도

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과 의회는 "만6천여 주민과 함께, 전주공장이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주)하이트진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홍천, 마산, 전주공장 3곳중 1곳을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완주군이 주변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

17일 완주군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공장 대형화재 대비 훈련, 어린이 대피훈련, 불시메시지 훈련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진행되는 현장훈련에는 전라북도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완주군 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정석케미칼)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군은 이에 앞서 성공적인 훈련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참여하에 훈련 시나리오 작성토의 및 훈련 진행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또 지난 9월에 이어 훈련 전문가의 2차 컨설팅을 실시, 대비책을 갖췄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단체 간 통합지위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기르겠다"며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김제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심현섭)은 지난 1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소방서와 함께 2017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은 사업단 청사 건물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분부, 소방, 방호복구, 의료구조 등 4개 분대로 구성되어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 초기 진압 및 부상대원 응급조치 등 화재발생에 대비한 종합훈련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김제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요령과



목욕소화전 등 소화설비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시범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동력 확보

김제시, 복지차량 전달식... 9대 보급 11월에 4대 보급 예정

김제시는 17일 시청광장에서 복지허브와 지역 9개 읍면장, 맞춤형복지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김제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복지차량 9대(가솔린)를 읍면지역에 보급하고 11월 동지역에도 맞춤형 복지차량 4대(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보급되는 차량전체에는 응급호출, 폭언등 현상상황 녹취, 경찰에서 공무원 위치정보 확인, 음성 통화기능을 갖춘 스마트 위치를 차량 1대당 3개씩 보급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복지차량이 전달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색관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자원발굴 연계, 대상자 동행서비스, 긴급지원, 이웃돕기 물품전달 등등 일선현장에서 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수행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



김제시는 17일 시청광장에서 복지허브와 지역 9개 읍면장, 맞춤형복지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4개소(오촌,신중,감산,교월)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 9개소(용지,금산,청하,만경,죽산,성덕,부량,백산,공덕)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업이 시민의 복지체감도

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차량을 이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살피주길 바란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 한 평생복지의 기를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매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